

# 나보다는 우리를

지행욱 / 한양대학병원 흉부외과



요즘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느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농산물을 매점매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만일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물론

상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행위는 나무랄 수 없으나 매점매석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UR 타결로 인해 우리의 농촌은 말할 수 없는 걱정에서 싸여 있다. 마스크 보급에 의하면 벌써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고향을 등지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농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벌여서 황폐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 운동은 우리 국민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자는 뜻에서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적극 호응돼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5천 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혈통을 보존하고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 맞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함으로써 우리의 농촌을 영원히 지킬 수가 있다.

물론 상품의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것보다 우수한 외국상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외국상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농촌은 건잡을 수 없이 피폐해질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들은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나만을 위하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야겠다.

우리들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라의 존재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빵의 원료인 밀은 거의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라 한다.

그 먼 나라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과 수확하고 나서 우리 나라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자.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병충해를

최소화하여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농약을 뿌렸을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국민들이 먹는 농산물에는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방부제를 뿌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농산물 수입국에 직접 정부관리를 파견하여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농산물을 가능하면 적게 수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나만의 이익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

수입국에 상주하면서 농산물의 재배 과정과 농약사용량 그리고 방부제 사용량 등을 가능하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촬영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독약이나 마 찬가지인 수입 농축산물을 먹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상대국이 먹여주지 않으니 수출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이유를 검토하게 되고 농약이나 방부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농약이나 방부제가 많이 함유된 밀로 만든 편리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아니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농약이나 방부제 등이 많이 함유된 식사를 함

어느 사회의  
어느 단체에서도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의 장래도 희망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기형을 미리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는 나만의 이익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온국민에게 정착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또다른 이야기로 어느 직장에서나 마찬가지로겠지만 병원에서의 일례를 들어보자.

지금 세계적으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공공 장소인 버스터미널이나 운동경기장, 공항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담배를 꼭 피우고 싶으면 흡연 장소에 가서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하여 금연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빠른 속도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물론 일부의 모 기업체에서 금연 운동을 시작하여 담배 피우는 행위를 고가 점수에 반영한다고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적어도 지금은 회사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정말 축하하고 싶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어떤가.

금연이라고 여러 곳에 표시해 놓고 "우리 병원은 금연 병원입니다"하고 입구에도 붙여놓고 있다.

그러나 병원내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환자가족과 의사 심지어는 교수들도 경쟁하듯 담배를 피워댄다. 환자들이 담배 연기가 싫다며 간호사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환자들에게 담배는 해로우니 피우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여기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므로 병원에서는 금연하는 것이 당연하다.

담배를 피움으로써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한다.

의료인이 되었으면 환자를 위해 최소한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또한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내의 경우를 보면 서로 먼저 인사하는 분들도 많으나 외면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인다.

몇 년, 몇 십 년을 같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마주치면 모르는 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계속해서 먼저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필자는 계속 먼저 인사할 것이다.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더욱 심해진 것 같다.

누구든지 먼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는 않고 권리만 먼저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 노사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리고 또한 병원에서도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병원이 발전한다고 믿고 있다.

환자 진료의 경우를 보면 초진을 본 교수는 끝까지 자기 환자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한다. 물론 처음부터 환자를 보았으므로 그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으나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의사와 의논을 해야 함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환자를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

환자가 치료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래도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사망하

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망한 환자는 다른 의사가 집도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수술사망률과 합병증이 많은 의사에게만 그 두 사람의 어떤 특수 관계로 인해 계속 환자를 보내는 의사가 있는데 이 또한 병원 발전의 저해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가 수술 환자를 모두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수술받을 환자에 대해 가능하다면 수술 전에 모든 검사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충분히 상태를 파악한 후에 수술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술 사망률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려면 한이 없겠으나 어느 사회의 어느 단체에서도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의 장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는다. †

#### - 약력 -

- 1960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75 " 의학박사
- 1979~'81 서독 뉘셀돌프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환교수
- 1981~'84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1986~현재 한양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
- 1991~'93 한양대학병원 백남심장센터 소장
- 1993 대한 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